

## 삼론종의 이원적 범주 연구\*

— 『大乘四論玄義記』 제1권 「初章中假義」의  
소밀(疏密), 횡수(橫豎), 단복(單複), 쌍척(雙隻),  
통별(通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조운경

서강대학교 강사

ipiiipi33@gmail.com

- |                                   |                         |
|-----------------------------------|-------------------------|
| I. 들어가며                           | IV. 단복(單複)과 쌍척(雙隻)의 사유들 |
| II. 중가(中假)의 다양한 형식으로서의<br>이원적 범주들 | V. 통별(通別)의 사유들          |
| III. 소밀(疏密)과 횡수(橫豎)의 사유들          | VI. 나가며                 |

### 요약문

이 논문의 목적은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大乘四論玄義記)』 제1권 「초장중가의(初章中假義)」를 중심으로 삼론종의 주요 이원적 범주들인 소밀(疏密)·횡수(橫豎)·단복(單複)·쌍척(雙隻)·통별(通別)의 근본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해보는 것이다. 삼론종 전통에서 이원적 범주들은 중도와 가명의 무애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사유틀일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교화의 방법론이다.

구체적으로, ‘소밀’에서 소는 두 법의 관계성이 ‘성감’을 나타내고, 밀은 한 법에 한정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159)

하여 ‘긴밀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횡수’는 각각 수평적으로 전개하는 횡론과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수론의 뜻인데, 혜균은 횡을 ‘병렬적으로 전개하는[傍開] 구절’로, 수를 ‘융합하여 전변하는[合轉] 구절’로 해석하였다. ‘단복’과 ‘쌍척’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서로 다르다. ‘단복’은 의미의 층위가 홑겹인지 혹은 여러 겹인지에 따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단은 단층적 의미를 나타내고 복은 중층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달리, ‘쌍척’은 짝개념과 홀개념을 가리키며 하나의 짝에서 양쪽 모두를 포괄하면 쌍이고, 어느 한 쪽만 지칭하면 척이다. 한편 ‘통별’은 ‘일반[通]’과 ‘특수[別]’의 관계인데, 통과 별은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서로 상대적으로만 성립하는 개념이다.

혜균은 이원적 범주들의 속성을 규명하면서 크게는 소-수-단-쌍-통과 밀-횡-복-척-별을 관련시켜 해석하였는데, 여기서 그의 독창적 사상이 드러난다.

#### 주제어

삼론종, 혜균, 소밀(疏密), 횡수(橫豎), 단복(單複), 쌍척(雙隻), 통별(通別)

## I. 들어가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원적 세계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살면서 나와 너, 있음과 없음, 여자와 남자, 높음과 낮음, 물질과 정신, 삶과 죽음, 고통과 즐거움, 빛과 어둠, 가난과 부, 행복과 불행 등을 경험한다. 하지만 현상 세계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이원적 인식에 머무르면 미혹과 집착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이원성에서 해방되어 깨달음에 이른다면 그 때는 어떻게 될까? 깨달음을 얻으면 이 이원적 세계가 완전히 폐기되는 것인가? 아니면 깨달음은 자의 시각에서도 이원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가?

삼론종에 의하면, 깨달은 후에도 이원성 그 자체는 폐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것은 깨달음과 현실, 중도(中道)와 가명(假名)이 본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깨달은 자가 미혹된 인식을 완전히 벗어나 절대(絶待)와 실상(實相)으로서의 중도를 체득하면, 자연히 가명이 자유자

재로 펼쳐질 수밖에 없고, 이원적 세계 또한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원성이야말로 불보살이 깨달고 나서 중생 속으로 들어가서 교화하는 매개가 된다.

삼론교학에서는 깨달은 자의方便(方便)으로서 이분법적 분별에 걸리지 않는 평등한 이원성을 담아내기 위한 사유로 소밀(疏密), 횡수(橫豎), 단복(單複), 쌍척(雙隻), 통별(通別) 등과 같은 이원적 범주를 창안한다. 삼론종에서 ‘이원적 범주론’이라는 개념은 김성철에 의해 처음 정립된 것으로, 그는 삼론종 초조인 승랑(僧朗)의 핵심 사상의 한 축으로 이 ‘이원적 범주론’을 꼽았다.<sup>1)</sup> 이 범주들은 이분법적 시각을 탈피하면서도 이원적 세계의 다양하고 평등한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고안된 사유틀이었다. 삼론종은 천인(天人), 내외(內外), 본말(本末), 체용(體用) 등 당시 중국철학의 전통적 범주가 아닌 새로운 범주들을 채택하였는데, 특히 그 중에서 소밀이나 쌍척과 같은 범주들은 상당히 생소한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원적 범주들은 불보살이 중생에게 설법하는 방법의 다양한 형식을 반영한 것이므로, 삼론종에서는 대승경전의 진정한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범주들을 알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길장(吉藏: 549-623)이나 혜균(慧均)과 같은 삼론사들은 자신의 저술 곳곳에서 다양한 이원적 범주를 채택하여 논변을 전개시키고 있다. 오늘날 삼론 문헌에서 보이는 섬세하고 정교한 논변은 이 이원적 범주들을 통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이원적 범주들을 규명하는 것은 삼론종의 교학체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논리 구조를 엄밀하게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소밀·횡수·단복·쌍척·통별은 삼론종의 교학 전반에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핵심적 방법론이다.

1) 김성철의 『승랑: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는 삼론종의 이원적 범주들에 주목하고 상세하게 고찰한 유일한 연구이다. 그는 삼론종에서 ‘이원적 범주론’이라는 개념을 처음 정립하면서, 승랑(僧朗) 사상의 네 축을 ‘이원적 범주론’, ‘방편적 교화론’, ‘상즉(相卽)의 실상론(實相論)’, ‘무득(無得)의 오도론(悟道論)’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그는 ‘이원적 범주론’의 유래가 구마라집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의 제자 도용을 거쳐 삼론종의 창시자인 승랑에게 전수되었음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횡수·소밀·단복·쌍척의 범주에 관해 자세히 규명하였다. (김성철, 『승랑: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파주: 지식산업사, 2011, pp.247-256.)

그러므로 삼론종의 교학체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이원적 범주들을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존하는 대부분의 삼론 문헌에서는 이 범주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각각의 범주를 상황에 맞게 운용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이원적 범주들의 의미가 드러났다. 따라서 그동안 이원적 범주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헌 속의 구체적인 논변들을 통해 범주들을 귀납적으로 정의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존재는 알려져 있었지만<sup>2)</sup>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대승사론현의기(大乘四論玄義記)』 제1권에 해당하는 「초장중가의의(初章中假義)」의 필사본이 근래 공개되었고,<sup>3)</sup> 이 문헌에서 혜균은 소밀·횡수·단복·쌍척·통별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어, 이원적 범주들에 대해 보다 진일보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 제1권 「초장중가의의」의 해석을 중심으로 삼론종의 주요 이원적 범주들인 소밀·횡수·단복·쌍척·통별의 근본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직까지는 「초장중가의의」에서 초장(初章)과 중가(中假) 부분을 제외한 후반부의 이원적 범주들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따라서 이 범주들에 대한 혜균의 해석을 토대로 범주들의 개념적 속성을 도출하고 길장의 문헌에서도 이 범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삼론종의 이원적 범주들의 근본적 속성을 도출한다면 삼론종에서 방편이 작용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初章中假義」 필사본은 오초 에니치(横超慧日)에 의해 그 존재가 알려졌다. 그는 「新出資料・四論玄義の初章中假義」(横超慧日, 1958)에서 당시 새로 발견된 「초장중가의의」 문헌을 소개하였다. 그 후 「초장중가의의」 필사본 자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토 타카토시(伊藤隆壽)의 세 편의 논문, 「三論教學における初章中假義(上)」(伊藤隆壽, 1974), 「三論教學における初章中假義(中)」(伊藤隆壽, 1975), 「三論教學における初章中假義(下)」(伊藤隆壽, 1976)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면모를 알 수 있었다. 그는 이 논문들을 통해 기존의 초장과 중가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지만, 「초장중가의의」 후반에 다루어지고 있는 이원적 범주들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3) 慧均, 최연식 校注, 『校勘 大乘四論玄義記』(서울: 불광출판사, 2009).

## II. 중가(中假)의 다양한 형식으로서의 이원적 범주들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 제1권 「초장중가의」는 모두 여덟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기 초장(初章), 중가(中假), 소밀(疏密), 횡수(橫豎), 단복(單複), 쌍척(雙隻), 통별(通別)에 대해 논하고 마지막으로 제법의 평등성을 조명한 다. 이와 같이 혜균은 삼론종의 이원적 범주들에 대해 각각 개별적인 장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동시에 각 범주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횡수·소밀·쌍척·단복은 삼론종을 창시한 서하사(西霞寺) 승랑(僧朗)으로부터 계승된 삼론교학의 중심 사상이다.<sup>4)</sup> 승랑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혜균은 전한다.

장안의 도융(道融: 355-434) 법사가 『유마경』을 주석하면서 구마라집(鳩摩羅什, Kumārājīva: 344-413) 법사께서 ‘만약 횡수·소밀·쌍척·단복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결코 대승경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다.<sup>5)</sup>

이와 같이 삼론종의 이원적 범주들은 그 연원이 구마라집과 그의 제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고삼론’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던 관중(關中)의 중관학과와 삼론종을 이어주는 사상적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이 범주들은 대승경전의 언어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학적 틀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승랑의 제자인 승전(僧詮: ?-558)은 『열반경』의 “아귀는 아귀가 아니고 아귀가 아닌 것도 아니다[鬼非鬼非非鬼]”나 『대품반야경』의 “수행에도 집착하지 않고, 수행이 아님에도 집착하지 않고, 수행과 수행이 아님에도 집착하지 않고, 수행이 아님과 수행이 아님이 아님에도 집착하지

4) 김성철, 앞의 책, pp.381-383.

5) 최연식 교구, 앞의 책, p.106. 攝嶺西霞大朗法師云, “長安融法師注『維摩經』中云, ‘師什法師云, 若不識橫豎, 疏密, 雙隻, 單複義, 終不解大乘經意.’”

않고, 집착하지 않음에도 집착하지 않는다[行亦不受, 非行亦不受, 行不行亦不受, 非行非非行亦不受, 不受亦不受]”등의 경문이 모두 소밀·횡수·단복·쌍척을 나타낸다고 명시한 바 있다.<sup>6)</sup> 이렇듯 삼론종에서 이 범주들에 대한 이해는 대승 경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혜균의 기록에 따르면 중국불교에서 소밀·횡수·단복·쌍척 네 범주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구마라집으로 추정된다. 구마라집이 이 범주들을 설정한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법의 모습이 전변하여 무궁무진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밝히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각기 다른 중생을 치료하여 깨닫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화형식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이다.<sup>7)</sup>

승전부터는<sup>8)</sup> 중생 교화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일면을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교화의 대상을 ‘유소득(有所得)을 주장하는 학파’로 설정하였는데, 이 학파는 대부분의 경우에 성실론사를 가리킨다. 삼론종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진(眞)과 속(俗), 허(虛)와 실(實)의 이제가 서로 격절되고 고정된 이치라고 파악하여 이제리(二諦理)를 주장했고, 삼론종은 그들의 이분법적 사유를 비판하고 그들로 하여금 무소득(無所得), 무종적(無蹤跡), 무궁전(無窮轉), 무애(無碍)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 이 범주들을 전개했다.<sup>9)</sup> 그 후 승전의 제자인 법량(法朗: 507-581), 손제자인 길장과 혜균은 모두 다른 학파를 대치하기 위해 다양한 이원적 범주들을 활용하는 삼론종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이렇듯 삼론종의 이원적 범주들은 깨달음에서 법의 모습이 무애한 바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안되었으며 또한 다양한 현실 상황에 맞게 중생을 교화하기

6) 앞의 책, p.106. 故止觀論師云, “『大經』云, ‘鬼非鬼非非鬼’等, 又如『大品經·相行品』云, ‘行亦不受, 非行亦不受, 行不行亦不受, 非行非非行亦不受, 不受亦不受’等文, 即是橫豎等四句”, 別文證成也. 이 인용문에서 처럼 인용하고 있는 원문 속에 다시 경전이 인용된 경우, 일차적으로 인용한 원문의 표기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7) 앞의 책, p. 106. 融師云, “什法師所以作此四句意, 有兩意: 一, 法相轉轉, 無窮開意也. 二, 治病所悟不同, 故開四句也.”

8) 「초장증가의」의 기록에 따라 ‘승전부터’라고 하였으나, 승전과 승량이 이에 관한 입장이 달랐는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9) 최연식 교주, 앞의 책, pp.106-107. 今足明之: 有所得家死在眞俗與虛實, 兩種二諦理中, 故令(원문은 ‘今’)彼悟無所得, 無蹤跡, 無窮轉, 無碍之意, 故對有所得明之, 起自止(원문은 ‘正’)觀法師.

위해서 창안되었다. 이 두 가지는 궁극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며, 모두 삼론종의 중가의(中假義)로 통한다. 중가의는 삼론종의 기본 교설로서 중도와 가명의 밀접한 상관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중도는 실상[實]을 가리키며, 가명은 무자성(無自性)의 다른 말이다.<sup>10)</sup> 삼론종에서는 중도와 가명이 둘이 아님을 강조하며, 『중론』에 나오는 삼시계(三是偈)의 ‘가명이 곧 중도’를 자주 인용한다. 이와 같이 중도와 가명은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삼론종에서 때로는 ‘중가(中假)’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중(假中)’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혜균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묻고 답한다:

문: ‘중가’라고 말했는데, ‘가중’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은가?

답: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가’와 ‘가중’, 이 두 가지 말이 다르니, 말에 의거하여 논의의 편의를 위하는 경우는 ‘중가’라고 말해야 하고, 병을 논파하는 말의 경우는 ‘가중’이라고 말해야 한다.<sup>11)</sup>

위에서 혜균은 ‘중가’와 ‘가중’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그 쓰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중가’에서 중은 근본이고 가는 지말이므로 본말의 순서가 논의하기 편하며, ‘가중’은 사람들이 ‘중’을 듣고 중도의 이치가 있다는 견해를 짓는 바를 논파하기 위해서 ‘가명이 중도’임을 말한다는 것이다.<sup>12)</sup> 이처럼 중가의에서 중도와 가명은 서로 아무런 결림이 없이 통하여, 중도에서 가명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가명에서 중도로 나아가기도 하며, 의리적 측면을 부각시킬 수도 있고 중생교화의 측면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 또한 길장은 『삼론현의(三論玄義)』에서 “성가중(成假中)에 단복, 소밀, 횡수 등의 뜻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원적 범주들을 성가중의 하위 항목에 위치시킨다. 즉, 길장은 이러한 이원적 범주들이 깨달은 자가 중도를 체득한 다음 다양한 형식

10) 앞의 책, p.91.

11) 앞의 책, p.90. 問: 既言中假, 亦得言假中不? 答: 亦得之. 而中假, 假中, 此二言異者, 若依語論之爲便者, 應言中假, 若破病語, 則應假中也.

12) 앞의 책, p.90.

으로 가립한 방편교화라고 보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삼론종의 이원적 범주들인 소밀·횡수·단복·쌍척·통별의 개념적 속성을 규명하고, 이 범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용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 III. 소밀(疏密)과 횡수(橫豎)의 사유들

길장은 『삼론현의』에서 ‘소밀(疏密)’과 ‘횡수(橫豎)’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무(有無)는 소가(疏假)이고, 비유비무(非有非無)는 소중(疏中)이다. 불유유(不有有)는 밀가(密假)이고, 유불유(有不有)는 밀중(密中)이다. 소(疏)는 곧 횡(橫)이고, 밀(密)은 곧 수(豎)이다.”<sup>13)</sup>

이 말에 의하면, 소는 유와 무에 관련된 용어이고, 밀은 유와 불유에 관련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중’과 ‘밀중’에서 ‘중’은 부정어와 연관되고, ‘소가’와 ‘밀가’에서 ‘가’는 긍정어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길장은 ‘소밀’과 ‘횡수’ 범주에서 소와 횡, 밀과 수를 각각 연관 짓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삼론현의』의 설명은 ‘소밀’과 ‘횡수’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너무 간략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초장중가의」에서는 ‘소밀’과 ‘횡수’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풀이하고 있어서 『삼론현의』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해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초장중가의」를 중심으로 삼론종의 ‘소밀’과 ‘횡수’ 범주의 의미와 구체적인 용례를 살펴보고, 이 두 범주의 관계에 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13) 『三論玄義』(T.45, 14c10-12): 有無爲疎假. 非有非無爲疎中. 不有有爲密假. 有不有爲密中. 疎卽是橫. 密卽是豎也.



## 1. 소밀(疏密) – 성김과 긴밀함

소밀은 삼론종의 대표적인 이원적 범주이다. 혜균은 「초장중가의」에서 여러 이원적 범주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소밀’에 대해 해석하는데, ‘공(空)이기 때문에 유(有)이고, 유이기 때문에 공이 있다’는 말은 소이고 ‘공은 공이 아니다[空不空]’, ‘유는 유가 아니다[有不有]’은 밀이라고 밝힌다.<sup>14)</sup>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밀’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혜균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문: 왜 ‘공유(空有)’는 소이고, ‘유가 아닌 유[不有有]’와 ‘공이 아닌 공[不空空]’은 밀인가?

답: 공유(空有) 두 법은 서로 연유하니, 공이기 때문에 유라고 말하고, 유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소이다. ‘유가 아닌 유[不有有]’와 ‘무가 아닌 무[不無無]’는 오직 한 법에서 다시 일으킨 것이므로 밀이라고 한다.<sup>15)</sup>

위의 문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밀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두 법이 연유하는지 혹은 한 법에서만 비롯되는 지이다. 그렇다면 소는 두 가지 다른 법의 관계성을 나타내기 위해 ‘성기다’의 뜻으로 쓰였고, 밀은 한 법에 범위를 한정하여 다시 일으킨 것이기에 ‘긴밀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공유(空有)’의 구절은 공과 유 두 법이 서로 연유하는 것이고 두 법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성기다[疏]’라고 표현할 수 있고, ‘불유유’나 ‘불무무’는 유나 무 중 한 법에만 국한하여 그것의 긍정과 부정의 관계를 논하기에 긴밀하다[密]고 할 수 있다.

소밀 범주를 토대로 전개시킨 개념으로 소대(疎待)와 밀대(密待)가 있다.<sup>16)</sup>

14) 최연식 교주, 앞의 책, p.107. 爲此見故, 法師更△進之, 明由空故有, 因有故有空, 此語爲疏, 若空不空, 若有不有, 此語爲密. 此則漸進之義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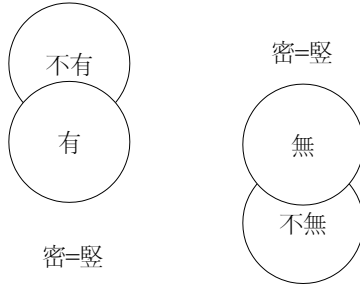
15) 앞의 책, p.107. 問: 何意空有爲疏, 不有有、不空空爲密耶? 答: 空有兩法相由: 由空故說有, 因有故說空, 此則爲疏. 若不有有, 不無無, 只於一法上更起, 故爲密也.

16) 2016년 불교학연구회 봄 논문발표회에서 남수영 선생님께서 소밀·횡수·단복·쌍척·통별 각각

길장은 『중관론소(中觀論疏)』에서 성긴 상대와 긴밀한 상대[疎密相待]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길[長]과 짧음[短]의 상대는 두 법의 관계이므로 소대라고 하고, 길[長]이 길지 않음[不長]을 상대한다는 것은 길[長]에서 바로 길지 않음[不長]을 논한 것이므로 밀대라고 정의하였다.<sup>17)</sup>



〈그림 1〉 소의 예: ‘有無’



〈그림 2〉 밀의 예: ‘有不有’와 ‘不無無’

이러한 소밀을 비롯한 삼론종의 이원적 범주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 쪽이 우월하거나 열등한 위계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두 중도에 들어가는 방편의 형식이며 동시에 대승경론의 언어 형식이기도 하다. 혜균은 소밀의 구체적인 예를 『열반경』에서 찾았는데, “유무(有無), 비유비무(非有非無)”의 구절은 소이고, “귀비귀(鬼非鬼), 비귀비비귀(非鬼非非鬼)”의 구절은 밀이다.<sup>18)</sup> 삼론종 전통

의 범주를 상호의존적 연기 관계로 해석하여, 소밀을 소대와 밀대로 해석할 것을 제안해주셨다. 필자는 상대(相待) 관계로 해석하기 어려운 범주도 있을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여 기존의 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선생님의 제안을 통해 필자는 이원적 범주들의 상호의존적 측면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심화된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해보고자 한다. 지면을 빌어 선생님의 고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

17) 『中觀論疏』(T.42, 97b29-c03)

18) 최연식 교주, 앞의 책, p.108.

에서 대승경론의 언어를 불보살의 방편교화로서 모두 신성하게 여기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혜균은 『성실론(成實論)』 등에서 밝히는 공과 유는 중도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대승의 소밀은 모두 중도에 들어간다고 명시하였다.<sup>19)</sup>

소가 중도에 들어간다[疏入中]는 것은 공이기 때문에 유이니 유는 공의 유이고, 유이기 때문에 공이니 공은 유이 공이다. 유이 공은 공이 아니고 공의 유는 유가 아니니,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님을 ‘중도’라고 하기 때문에 중도에 들어갈 수 있다. 공 역시 중도에 들어갈 수 있다.

밀이 중도에 들어간다[密入中]<sup>20)</sup>는 것은 공은 불공의 공이고 불공은 공의 불공이다. 불공의 공은 공이 아니고 공의 불공은 불공이 아니니, 공도 아니고 불공도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들어갈 수 있다. 유는 불유의 유이고 불유는 유이 불유이다. 불유의 유는 유가 아니고, 유이 불유는 불유가 아니니, 유도 아니고 불유도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들어갈 수 있다.<sup>21)</sup>

위에서 혜균은 성김[疏]과 긴밀함[密]이 어떻게 중도에 들어가는지를 해석하고 있는데, 그의 논법을 들여다보면 소는 공과 유, 두 법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 관계성이 비교적 성기고, 밀은 공과 불공이나 유와 불유와 같이 한 법에 관해 논하기에 그 관계성이 긴밀하다는 차이는 있지만, 소와 밀이 모두 양변의 관계성으로 양변을 동시 부정하는 방식으로 중도에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혜균은 소밀을 풀이하면서 소밀과 횡수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였는데, 이는 『삼론현의』에서 소와 횡, 밀과 수를 동일시 여겼던 관점과 다

19) 앞의 책, p.107. 若『成論』等, 明空有, 不得入中, 兩理定故也. 今大乘明義, 疏密並得入空也. 이 문장에서 ‘입공’은 앞뒤에서 모두 ‘입중’을 언급했던 맥락을 고려할 때, 공은 중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0) ‘공역득입중자(空亦得入中者)’는 내용상 ‘밀득입중자(密得入中者)’의 오기라고 생각된다.

21) 최연식 교주, 앞의 책, pp.107-108. 疏入中者, 因空故有, 有是空有, 因有故空, 空是有空, 有空非空, 空有非有, 非空非有, 名爲中, 故得入中也. 空亦得入中也. 空亦得入中者, 空是不空之空, 不空是空之(원문은 ‘之空’)不空, 不空空非空, 空不空非不空, 非空非不空, 故得入中也. 有是不有之有, 不有是有之不有, 不有有非有, 有不有非不有, 非有非不有, 故得入中也.

르지 않다. 혜균은 소중가(疏中假)인 ‘공유(空有)’는 두 법이 서로 상대하므로 [相望] 횡론(橫論)이라고 할 수 있고, 밀중가(密中假)인 ‘공불공, 유불유’는 공과 유에서 ‘공이 아님[不空]’과 ‘유가 아님[不有]’으로 나아가므로 수론(堅論)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sup>22)</sup> 하지만 혜균은 뒤에서 다시 소와 수, 밀과 횡을 연관 지어 논의하기도 하는데, 이 지점에서 소밀과 횡수가 비록 밀접한 연관성은 있지만, 두 범주의 의미 영역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횡수를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 2. 횡수(橫豎)－수평적 전개와 수직적 상승

횡수는 소밀보다 광범위하게 쓰이는 범주로서, 삼론종 이외의 사상가들에 계도 널리 쓰이기 때문에 비교적 친숙한 용어다. 주지하다시피, 횡은 가로를 말하고 수는 세로를 지칭하므로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논의하는 것을 횡론이라고 하고, 수직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논변을 수론이라고 한다. 길장도 그의 저작 곳곳에서 횡론과 수론을 통해 논의를 펼치고 있다.<sup>23)</sup> 예를 들어, 그는 『이제의(二諦義)』에서 횡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세움에서 밝힌 뜻은 인연의 무애한 이제인데, 『중론』에서 “인연으로 생기한 법을 나는 공이라고 말하는데, 곧 가명이고, 곧 중도이다”라고 한 것과 같으니, 횡수가 모두 무애하다. ‘가명이 곧 중도’라는 것은 수직적인[豎] 무애이니, 둘[二]은 둘이 아님[不二]을 장애하지 않고 둘이 아님[不二]은 둘[二]을 장애하지 않으며, 둘[二]은 둘이 아님[不二] 작용이고 둘이 아님[不二]은 둘[二]의 작용이다. ‘인연으로 생기한 법을 나는 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수평적인[橫] 무애이니, 유는 공을 장애하지 않고 공은 유를 장애하지 않으며, 유는 공의 작용이고 공은 유의 작용이다.<sup>24)</sup>

22) 앞의 책, p.108.

23) 김성철은 횡수에 대한 삼론학의 대표적인 용례로 “가로방향으로는 팔미를 논파하고 세로방향으로는 오구를 추궁한다(橫破八迷, 豎窮五句)”라는 문구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상세하게 해석하였다. 김성철, 앞의 책, pp.249-251.

24) 『二諦義』上卷(T.45, 85b06-12) 言立義者, 因緣無礙二諦, 如『中論』所說, “因緣所生法, 我說即是空, 即是

위에서 길장은 『중론』의 삼시계가 횡수의 무애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한다. 즉, ‘인연으로 생기한 법을 나는 공이라고 말한다’는 구절은 유와 공이 서로 무애함을 말한 것이므로 횡론이며, ‘가명이 곧 중도’라는 구절은 둘[二]과 둘이 아님[不二]이 서로 무애함을 지칭한 것이므로 수론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길장은 서로 등가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개하는 횡론으로 보고, 현상을 부정하여 그것을 초월하는 것과 같이 위계를 달리하는 논의를 수론으로 보았다. 앞의 소밀과 마찬가지로 횡수도 모두 중도에 들어가고 이치를 나타내기에 횡이나 수 그 자체로는 우열이 없다. 여기까지의 횡수에 관한 해석은 길장과 혜균에 공통되므로 그들이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삼론종의 전통적 해석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혜균은 전통적인 횡수 관념에서 더 나아가, 횡수에서 횡은 병렬적으로 전개하는[傍開] 구절의 모습을 지칭하고, 수는 융합하여 전변하는[合轉] 구절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장(初章)은 일단 횡에 속하니, 단지 유와 무를 서로 마주시키기만 하고, 유불유를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수평적 전개[橫]이다. 지금 횡수 구절의 모습에서 만약 ‘유무, 비유무’라면 소증가의 의미이고 또한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언어[豎語]이다. ‘유불유, 비유비불유’는 밀증가의 의미이고 수평적으로 전개하는 언어[橫語]이다. 왜 그러한가? 횡은 병렬적으로 전개한 것[傍開]이고, 수는 융합하여 전변한 것[合轉]이다. 그러므로 ‘유무’가 융합하여 전변해서 ‘비유무’를 밝혔으므로 수직적 상승[豎]이고, ‘유불유, 무불무’는 유에서 불유를 독자적으로 전개하였지만 무를 전개하지는 않았고, 무에서 불무를 독자적으로 전개하였지만 유를 전개하지는 않았으므로 수평적 전개[橫]이다.<sup>25)</sup>

假名, 卽是中道”, 橫豎皆無礙. ‘假卽中’, 卽豎無礙: 二不礙不二, 不二不礙二, 二爲不二用, 不二爲二用. ‘因緣生法, 我說卽是空’, 卽橫無礙: 有不礙空, 空不礙有, 有爲空用, 空爲有用.

25) 최연식 교주, 앞의 책, p.108. 初章一往所屬橫, 直作有無相對, 未明有不有, 故橫也. 今橫豎言章相者, 若有無非有無, 則是疏中假義, 亦是豎語也. 有不有, 非有非不有, 密中假義, 亦是橫語. 何故然? 橫則是傍開, 豎則合轉, 故有無合轉明非有無, 故是豎. 有不有, 無不無, 則就有中自開不有, 非開無, 無中自開不無, 非開有, 故是橫也.

여기에서 혜균은 ‘유무, 비유무’는 수론이고 ‘유불유, 비유비불유’는 횡론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의는 얼핏보면 앞의 소밀을 다룬 절에서 ‘공유’는 횡론이고, ‘공불공’, ‘유불유’은 수론이라고 했던 것과 상반된 해석을 하는 듯하다. 이처럼 단순히 ‘유무’나 ‘유불유’를 나타낸 구절과 이것을 한 번 더 부정하여 ‘유무, 비유무’나 ‘유불유, 비유비불유’라고 한 문장에서 횡수 관계가 뒤바뀐 것은 무엇 때문인가?

〈표 1〉 소밀과 횡수의 상관관계

疏		密	
‘有無’	橫	‘有不有’	豎
↓부정[非]		↓부정[非]	
‘有無, 非有無’	豎	‘有不有, 非有非不有’	橫

위의 인용문에서 한 법과 두 법을 기준으로 소밀 범주를 나누었다는 점에서는 앞 절의 내용과 다를 바 없다. 다만 앞에서 소밀을 밝히면서는 ‘공유’인 소증가는 횡론이고, ‘불유유’나 ‘불무무’인 밀증가는 수론이라고 하였지만, 다시 횡수를 변석하면서는 ‘유무, 비유무’, 즉 소증가는 ‘수어(豎語)’이고, ‘유불유, 비유비불유’, 즉 밀증가는 ‘횡어(橫語)’라고 하였으므로, 양자의 소밀과 횡수의 상관관계가 전복된 것이다. 왜 앞에서의 소는 수평적이고, 뒤에서의 소는 수직적인 것인가?

혜균이 초장을 거론하고 있는 구절을 다시 살펴보자. 초장은 ‘배우는 장문(章門)의 처음’<sup>26)</sup>으로 삼론종의 근본 종지를 담아 그 의미를 개괄하는 말이다. 삼론종에서 초장을 간략하게 나타내기도 하고 자세하게 전개시키기도 하지만,<sup>27)</sup> 일반적으로 타가(他家)의 자성이 있는 유무(有無)에 대비해서 삼론종의 유무는 인연으로서의 유무임을 나타내는 형식이다. 혜균은 인용문의 첫 머리

26) 『二諦義』 上卷(T.45, 89b26): 初章者, 學者章門之初, 故云初章.

27) 최연식 교주, 앞의 책, pp.73-74.

에서 초장에서 유와 무가 서로 마주한 것 그 자체는 수직적인 초월이 없으므로 수평적 전개[橫]라고 한다. 초장에서는 유와 무의 상관성을 드러내어 유와 무를 개별적인 자성을 지닌 실체로 잘못 인식하는 것을 흔들어 놓았을 뿐, 잘못된 인식을 완전히 뿌리 뽑아 중도에 도달하도록 하지는 못하였다.<sup>28)</sup> 이러한 초장의 맥락에 비추어서 ‘유무’를 살펴본다면 유와 무가 수평적인 논의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불유’의 경우는 단순히 유에 머무르지 않고 유를 초월하였으므로 수직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

반면, ‘유무, 비유무’와 ‘유불유, 비유비불유’ 두 구절에서는 모두 부정을 통한 초월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 이 경우에 혜균은 ‘유무, 비유무’처럼 두 법이 하나로 융합되어 그 성질이 완전히 전변하는 것[合轉]이 진정한 수론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유와 무의 다른 두 법이 하나로 합쳐져서 변증적으로 전변해야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인 비유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불유, 무불무’에서는 비록 유도 부정하고 무도 부정하고는 있지만, 이 부정의 과정에서 타자와의 관계는 배제되었다. 즉, 유에서는 유만 부정하여 불유를 전개하였을 뿐 무와 관계 맺지 못했고, 무에서는 무만 초월하여 불무를 전개하였을 뿐 유와의 상관성을 도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은 스스로의 한계 내에서의 초월일 뿐이다. 따라서 유와 무 각각의 한계는 극복하였을지 몰라도, 다시 큰 틀에서는 불유와 불무가 병렬적으로 나열되므로 수평적 전개[橫]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미루어보면, ‘비유비불유’와 ‘비무비불무’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길장과 혜균 모두 횡수에서 부정을 통한 초월을 수론으로 간주한다는 점은 공통되지만, 혜균이 수론의 조건으로 꼽은 두 가지가 ‘융합하여 전변한다[合轉]’는 속성은 길장에게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독창적인 일면이다. 혜균과 길장은 앞에서 다루었던 소밀 범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석상의 차이가 없었으나 횡수 범주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었고, 따라서 소밀과 횡수의 상관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

28) 앞의 책, p.78.

말하자면, 길장은 소와 횡, 밀과 수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았으나, 혜균은 두 범주 간의 상관성이 고정되기보다 중심 의미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유무, 비유무’와 ‘유불유, 비유비불유’와 같은 복합적인 구절에서는 유와 무, 두 법이 융합하여 전변해야만 수직적으로 초월하는 까닭에, 앞의 ‘유무’나 ‘유불유’와 같은 단순한 구절에서 보였던 소-횡, 밀-수 간의 연관성이 전복되고, 새롭게 소-수, 밀-횡의 연대를 형성한다.

#### IV. 단복(單複)과 쌍척(雙隻)의 사유틀

길장은 『삼론현의』에서 ‘단복’에 관해 “유는 단가이고, 비유는 단중이고, 무의 의미도 그러하다. 유무는 복가(複假)이고 비유비무는 복중이다.”<sup>29)</sup>라고 해석한다. 이에 의하면, 유나 무 가운데 하나만 대상으로 전개한 논변은 단이고, 유와 무 모두에 대해 전개한 논변은 복이 된다. 하지만 이 해석만으로 ‘단복’과 ‘쌍척’을 살펴보면, 유나 무 가운데 하나만 말하면 단이고 척이며, 유무 모두를 말하면 복이고 쌍이 되기 때문에 두 범주 간의 의미 구별이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혜균도 「팔불의(八不義)」에서 단복으로 증가의를 판별하고 있는데, 그 중 단층적인 차원의 단복에서는 ‘가유(假有)’나 ‘가무(假無)’만을 말하는 것은 단가이고, ‘비유’나 ‘비무’만을 말하는 것은 단중이며, ‘가유가무’를 짝지워 말하는 것은 복가이고, ‘비유비무’를 말하는 것은 복중이라고 정의한다.<sup>30)</sup> 앞의 『삼론현의』와 「팔불의」의 해석에서 단복은 쌍척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럼 단복과 쌍척은 과연 동일한 의미를 지닌 범주일까? 혜균은 「초장증가의」에서 단복과 쌍척을 명확하게 구분짓는다. 따라서 단복과 쌍척에 대한 해

29) 『三論玄義』(T.45, 14c08-10): 如說有爲單假. 非有爲單中. 無義亦爾. 有無爲複假. 非有非無爲複中.

30) 최연식 교주, 앞의 책, pp.153-154. 『大乘玄論』(T.45, 32b18-22): 今先正論單復中假義: 若偏說假有, 不說無, 是單假也. 偏說假無, 不說有, 亦是單假. 偏說一非有, 是單中, 偏說一非無, 亦是單中. 雙說假有假無, 是複假. 雙說非有非無, 是複中也.



균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이들 두 범주가 때로 유사하게 쓰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각각의 의미 영역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단복(單複) - 단층적 의미와 중층적 의미

단복 개념은 문자적으로 단수와 복수를 뜻하고, 그러므로 일자와 다자[一多] 개념은 분명 쌍척과 통하는 부분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치환도 가능하다. 하지만 두 범주의 고유한 의미는 엄연히 구별된다. 단복 범주는 뒤에서 다룰 쌍척 범주와는 달리 의미의 층위가 홑겹인지 혹은 여러 겹인지가 기준이 된다. 즉, 단은 단층적 의미를 나타내고 복은 중층적 의미를 나타낸다. 혜균은 단복의 구체적인 용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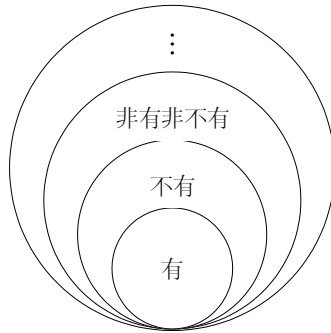
(그) 구절은 무엇인가? ‘유무, 비유무’는 소와 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단층적[單]이다. ‘유불유, 무불무, 비유비불유, 비무비불무’는 밀과 횡의 의미이기 때문에 중층적[複]이다.<sup>31)</sup>

혜균은 단복을 명칭에서부터 접근해나가는 방식보다 앞에서 해석하였던 소밀과 횡수 범주와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풀이해나간다. 즉, 앞에서 소-수 범주로 풀이하였던 ‘유무, 비유무’를 다시 단으로 해석하고, 밀-횡 범주로 풀이하였던 ‘유불유, 비유비불유’는 다시 복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범주들의 조합은 단순한 우연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각 범주들의 속성 간에 특정한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횡수에서 ‘유무, 비유무’는 유와 무가 융합하여 전변하면 수직적으로 상승하게[豎] 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님[非有無]은 이미 완전한 초월을 이루었기에 유나 무에서 다시 또 다른 의미의 층위를 전개할 여지가 없으므로 단층적[單]이라 할 수 있다.

31) 앞의 책, p.109. 言章何者? 明有無, 非有無, 是疏是豎義, 故爲單也. 有不有, 無不無, 非有非不有, 非無非不無, 是密是橫義, 故複也.

반면, ‘유불유, 무불무, 비유비불유, 비무비불무’에서 유불유는 무와 상관이 없으며 무불무는 유와 상관이 없어서 큰 틀에서는 다시 유불유와 무불무가 병렬적으로 나열되었으므로, 수평적 전개[橫]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유불유와 무불무는 다시 자기 부정을 통해 비유비불유와 비무비불무의 심층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유에서 유가 아님[不有]을 전개하였고, 또 다시 불유가 아님[非不有]을 중복해서 전개하였으므로 중층적[複]이라 할 수 있다. 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3〉 복의 예: ‘有不有, 非有非不有’

하지만 앞의 『삼론현의』에서 “유무는 복가이고 비유비무는 복중”이라고 설명했던 것에 근거해서 ‘유무, 비유무’가 유와 무, 두 법을 합하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복이 아닌가라고 반문해볼 수도 있다. 혜균은 이 문제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자문자답한다.

문: 유와 무를 합하여 밝히는 것은 (양자를)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합한 것이니, (너희가 말하는) 단의 의미는 복의 의미여야 한다. 유불유는 (병렬적으로) 전개되었는데, 분리되었으므로 단이어야만 하는데, 어찌하여 복이라는 것인가?

답: 반드시 합하여 묶는 것이 복이고 분리하는 것이 단일 필요는 없다. 지금 이것의 바른 의미는 성기고[疏] 간략한 언어를 통해 긴밀한 의미를

중복하지 않는 것이 단이므로 ‘유’를 단층적으로[單] 말하였고 ‘무’를 단층적으로[單] 말하였다는 것이다. ‘비(非)’ (즉, 비유무)의 의미도 마찬가지다. 그 핵심적인 상세하고 긴밀한[密] 언어를 취해 잘 드러나지 않은 뜻을 중복하는 것이 복이므로 유에서 다시 유가 아님[不有]을 중층적으로[複] 밝혔고, 무에서 다시 무가 아님[不無]을 중층적으로[複] 밝혔다. ‘비불(非不)’ (즉, 비불유와 비불무)의 의미도 그러하다.<sup>32)</sup>

그는 위의 문답에서 유와 무를 합하고 분리시키는 것이 단복의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밝힌다. 유와 무가 합쳐졌는지 혹은 분리되었는지보다 오히려 소밀 범주와의 관계가 더 관건이라고 보았다. 즉, 성기고 간략한 언어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단층적[單]이고, 그 요점만 취해 상세하고 긴밀한 언어는 중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층적[複]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복은 단순히 법의 수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의미의 층위가 단층적인지 혹은 중층적인지를 표현하는 지표가 된다.

단복은 삼론교학에서 대상을 점진적인 방식으로 교화하는 데 있어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삼론종의 이제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삼중이제(三重二諦)’나 ‘사중이제(四重二諦)’의 핵심은 미혹된 집착을 점진적으로 버리도록 하는 것인데, 그 중층적 구조는 기본적으로 단복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뼈대를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3)</sup>

## 2. 쌍척(雙隻)－짝개념과 홀개념

쌍척에서 쌍(雙)은 두 짝을 나타내고 척(隻)은 그 중 하나를 나타낸다. 즉, 두 개의 대립 개념이 하나의 짝을 형성할 때, 양쪽 모두를 포괄하여 쌍이라고 일컫고, 어느 한 쪽만 지칭하여 척이라고 부른다.<sup>34)</sup> 그렇다면 쌍은 짝개념으로,

32) 앞의 책, p.109. 問: 有無合明, 不開故合, 單義 當是複義也. 有不有既開, 開離故應是單, 何得是復耶? 答: 未必是合束爲複, 開離爲單. 今此正意, 以疏略語, 不重密義爲單, 所以單邊有, 單邊無也. 非義亦爾. 取其切細密語, 重隱處爲複, 故有中復明不有, 無中復明不無. 非不義亦然也.

33) 趙允卿, 『教門即是理門: 吉藏二諦思想研究』,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北京: 北京大學, 2014, p.103.

34) 김성철, 앞의 책, p.254.

척은 홑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쌍척은 앞에서 말했듯 단복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단복 범주가 서로 다른 위계적 층위를 다루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쌍척은 짝을 이루는 하나의 개념쌍 안에서 지칭 대상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럼 쌍척의 구체적인 용례는 무엇인가?

‘유무, 비유무’는 비록 소와 수와 단의 의미라고 말하였지만, 짝개념[雙]이다. ‘유불유, 무불무, 비유비불유, 비무비불무’는 비록 밀과 횡과 복의 뜻이라고 말하였지만, 홑개념[隻]이다.<sup>35)</sup>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혜균은 쌍척을 앞에서 해석하였던 소밀·횡수·단복과 다시 연관시킨다. 앞에서 소-수-단으로 해석하였던 ‘유무, 비유무’는 다시 쌍으로 정의하고, 밀-횡-복으로 해석하였던 ‘유불유, 무불무, 비유비불유, 비무비불무’는 다시 척으로 정의하였다. 양자의 구별은 앞의 소밀 범주에서처럼 한 법인지 혹은 두 법인지가 기준이다. 즉, ‘유무’처럼 두 법을 서로 마주하여 밝히면 ‘짝개념[雙]’이고, ‘유불유’처럼 한 법에서만 전개하면 ‘홑개념[隻]’이다.<sup>36)</sup> 위에서 언급한 ‘유불유, 무불무, 비유비불유, 비무비불무’ 구절에서 ‘유불유’는 굳이 무를 마주할 필요가 없으므로 한 법에서만 전개된 ‘홑개념[隻]’이고, ‘무불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위에서 다루었던 다른 범주들의 경우와 같이 쌍척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되는 융통성이 있으므로 고정불변한 형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쌍척도 대승경론의 언어 형식을 정밀하게 포착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혜균은 경론에서 ‘유무’, ‘거래(去來)’ 등과 같은 표현은 짝개념[雙]이고, ‘불유유’, ‘불래래(不來來)’나 ‘문불문(聞不聞)’, ‘지부지(至不至)’ 등과 같은 구절은 홑개념[隻]이라고 설명한다.<sup>37)</sup> 그리고 쌍척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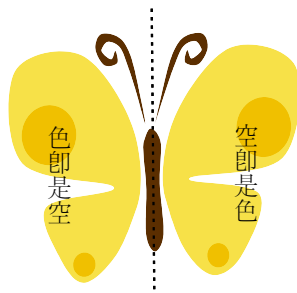
35) 최연식 교주, 앞의 책, p.111. 有無非有無, 雖言是疏、豎、單義, 而是雙(원문은 ‘霍’), 有不有, 無不無, 非有非不有, 非無非不無, 雖言密、橫、複義, 而是隻.

36) 앞의 책, p.111. ‘有無’則約兩法相對明, 故是雙, ‘有不有’等, 一往一法上開有, 開有不有, 故是隻也.

37) 앞의 책, p.111.

경』의 구절을 인용하였는데, “마치 원앙 등의 새가 슬피 우는 것처럼 상과 무상 등은 짝을 이루어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如鴛鴦等鳥啼, 常無常等, 雙不相離]”<sup>38)</sup>는 구절은 쌍에 해당하고, “기린(무소)의 뿔처럼 홀로 감[麒麟獨一之行]”은 척에 해당한다.<sup>39)</sup>

앞에서 단복 등이 그랬던 것처럼, 쌍척 범주도 삼론교학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길장은 『이제의』에서 이제상즉(二諦相卽)을 나타내는 경문의 여러 표현 형식 가운데 하나로 쌍용(雙用)과 척용(隻用)을 꼽았다. 그는 『열반경』에서 “세제가 바로 제일의제이다[世諦卽第一義]”라고 한 것과 『유마경』에서 “색의 본성 그 자체가 공하며, 색이 소멸하여 공이 되는 것이 아니다[色性自空, 非色滅空]”라고 한 것은 ‘한 짝의 작용[隻用]’만을 나타낸다고 해석하였다. 반면 『대품반야경』에서 “공은 바로 색이고 색은 바로 공이니, 공을 떠나 색이 없고 색을 떠나 공이 없다[空卽色, 色卽空, 離空無色, 離色無空]”고 한 것은 ‘평등한 도의 짝을 이룬 작용[平道雙用]’이라고 밝히고 있다.<sup>40)</sup> 이와 같은 길장의 해석에 의거한다면, 쌍척 범주는 단순히 한 법인지 혹은 두 법인지의 기준을 떠나 논의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지 혹은 비대칭인지까지도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다.



〈그림 4〉 쌍의 예: ‘色卽是空, 空卽是色’

38) 이 인용문은 『열반경』 「조유품(鳥喩品)」의 원문을 축약해서 인용한 것으로, 경문에서는 고, 무상, 무아 등의 법이 서로 떨어지지 않음을 가린제(迦隣提)나 원앙과 같은 새들이 함께 다니면서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 비유했다. 경문에는 ‘슬피 운다[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원앙을 서로 떼어내려 하면 슬피 운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大般涅槃經』 8卷(T.12, 655b13-23)

39) 앞의 책, p.112.

40) 『二諦義』 下卷(T.45, 104c12-26)

이와 같이 쌍척은 두 가지 개념이 하나의 짝을 형성하고 있거나 법의 모습이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범주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짝개념[雙]이 홀개념[隻]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홀개념[隻]도 이미 짝개념[雙]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V. 통별(通別)의 사유들

‘통별’은 ‘일반[通]’과 ‘특수[別]’의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범주는 삼론 문헌뿐만 아니라 삼론 이외의 학파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였던 개념이다. 혜균은 「초장증가의」에서 구마라집이 언급했던 소밀·횡수·단복·쌍척 네 가지 범주 외에도, 통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통별은 앞의 네 가지 범주들과 그 속성이 다르다. 통별도 앞의 소밀·횡수·단복·쌍척과 같이 증가를 나타내는 다양한 형식들 가운데 하나임은 틀림없지만, 앞에서 다루었던 네 범주들은 궁극적인 이치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자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설한 언어였다.<sup>41)</sup> 이와 달리, 통별은 그 자체만으로는 일정한 의미로 고정되지 않고, 통과 별이 서로 마주하여 의미를 파생시키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일반은 특수에 상대하고 특수는 일반에 상대하여 성립한다.<sup>42)</sup>

다른 범주들과 마찬가지로, 통별 범주 또한 삼론종에서 이론을 전개할 때 자주 쓰이는데, 각각 일반론[通論]과 개별론[別論]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길장의 『유마경의소(維摩經義疏)』와 『정명현론(淨名玄論)』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

불가사의한 경계라고 하는 것은 곧 진속이제이다. 그러나 이제는 경계나 가르침이 아닌데, 이치를 나타내는 것에 의거하여 말하였으므로 이제는

41) 최연식 교주, 앞의 책, p.113.

42) 앞의 책, p.113. 而言通別者, 不他爲義, 通是對別明也. 通別別通, 故言通別也.

가르침이라고 하였으며 지혜가 발생하는 의미를 따랐기 때문에 이제는 경계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通] 말하면, 이 진속이경(眞俗二境)은 모두 인연가명(因緣假名)의 무소득의 의미이지, 범부나 이승의 유소득의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니므로 두 경계를 불가사의하다고 하였다. 개별적으로[別] 논하면, 진제는 제법의 실상으로 마음의 작용이 소멸하였으므로 사랑으로 분별할 수가 없으며 언어 또한 끊어졌으므로 입으로 의론할 수도 없으니 진제는 불가사의하다. 속제도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의 작용이 소멸하였다. 예를 들어, 가유는 고정된 유일 수 없으므로 고정된 유라는 마음이 소멸하며, 가유는 고정된 무일 수 없으므로 고정된 무라는 마음이 소멸한다. 고정된 역유역무(亦有亦無)나 비유비무일 수도 없으므로 유소득의 고정된 사구(四句)의 마음이 소멸할 수 있다. 또한 고정된 자성의 사구도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속제는 불가사의하다.<sup>43)</sup>

문: 권(權)과 방편(方便)은 어떻게 다른가?

답: 일반적으로는[通] 구별이 없으니 모두 선교(善巧)의 의미이다. 개별적으로[別] 말하면 방편은 장구하지만 권의 의미는 짧다.<sup>44)</sup>

처음 『유마경의소』의 인용문에서 길장은 진속이경이 불가사의함을 통별로 나누어 설명을 전개한다. 일반론에서는[通] 진제와 속제가 모두 무소득의 의미므로 유소득의 사람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깨달음의 경계가 불가사의할 수밖에 없음을 통론으로 해석한 다음, 다시 진제(=眞境)와 속제(=俗境)가 각각 불가사의한 까닭을 개별적인 특수성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개별적으로[別] 진제는 마음의 작용이 소멸하였고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분별하거나 의론할 수가 없으므로 불가사의하다. 속제도

43) 『維摩經義疏』 4卷(『大正藏』 38, 961c19-962a01): 言不思議境者, 即是眞俗二諦. 然二諦未曾境教, 據表理而言故, 二諦爲教, 約發智之義故, 二諦名境. 通而言之: 此眞俗二境, 皆是因緣假名無所得義, 非是凡夫二乘有所得人, 所能思議, 故二境名不思議. 據別爲論: 眞諦即諸法實相, 心行處滅, 故意不能思, 言語亦斷, 故口不能議, 謂眞諦不思議也. 俗諦亦言語道斷, 心行處滅. 如假有不可定有, 故定有心滅, 假有不可定無, 故定無心滅. 不可定亦有亦無, 非有非無, 故有所得定四句心能滅. 亦定性四句, 所不可言. 故是俗諦不思議也.

44) 『淨名玄論』 5卷(『大正藏』 38, 886c): 問: 權與方便, 有何異耶? 答: 通則無別, 皆是善巧之義也. 別而爲言之: 方便則長, 權義則短.

진제와 마찬가지로이다. 길장은 가유를 속제의 구체적인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가유는 자성이 없으므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역유역무도 아니고, 비유 비무도 아니므로, 사구로 분별하거나 의론할 수 없어서 불가사의하다. 이와 같이 통별 범주는 대상을 파악할 때,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맥락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일반성과 그것의 개별적 특수성을 혼용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리하여 일반론[通]과 개별론[別]은 서로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위의 『정명현론』의 인용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권(權)과 방편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맥락에서는 권은 깨닫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립한 수단이며<sup>45)</sup> 방편은 권의 도구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장구한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이와 같이 삼론교학에서는 전체와 부분, 일반과 특수 등이 때로는 상반된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통별의 사유들은 이러한 역설적인 지점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혜균은 통별 범주도 앞에서 다루었던 네 가지 범주와 연관시켜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通]을 소-수-단-쌍의 범주와 연관시키고 특수[別]를 밀-횡-복-척의 범주와 관련시켰다. 예를 들면, ‘유무’는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일반[通]’임에 반해, ‘유불유, 무불무’는 유에서 유가 아님을 별도로 전개하고, 무에서 무가 아님을 별도로 전개하므로 ‘특수[別]’라고 구별한다.<sup>46)</sup> ‘유불유, 무불무’를 ‘특수[別]’로 간주하는 논리 구조는 앞의 『유마경의소』에서 언급되었던 ‘가유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역유역무도 아니고, 비유비무도 아니라는 논리’와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통별에서 주목할 점은 혜균과 길장이 상대(相待) 개념에 관하여 일반과 특수[通別]에 대한 판단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혜균은 앞에서 말했던 소밀, 횡수 등의 범주들과의 상관성을 토대로 ‘유무’는 전체를 통칭하므로 ‘일반

45) 조윤경, 「삼론교학에 나타난 ‘방편(方便)’의 의미-‘방편(方便)’과 ‘권(權)’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禪文化研究』 제19집, 2015, p.26.

46) 최연식 교주, 앞의 책, pp.113-114. 還約前諸義, 以有無, 疏密橫豎雙單語明之, 但任運通方, 故言通. 別有不有無不無, 密橫隻語明之, 以從有別開不有, 無別開不無, 故言爲別也. 인용구의 첫 문장에 나오는 ‘密橫’ 두 글자는 논리전개 상 연문으로 간주하였다.



상대[通待]’이며 ‘유불유’는 개별적으로 말하므로 ‘특수 상대[別待]’라고 해석하였다.<sup>47)</sup> 이와 반대로 길장은 『이제의』나 『중관론소』 등에서 길고[長] 짧음[短]이 상대하는 것은 ‘특수 상대[別待]’이고, 길고[長] 길지 않음[不長]이 상대하는 것은 ‘일반 상대[通待]’라고 밝힌 바 있다.<sup>48)</sup> 혜균은 길장의 이러한 관점에 대해 “소밀의(疏密義)의 주장을 파괴하는 것”<sup>49)</sup>이라 비판한다.

## VI. 나가며

이상으로 혜균의 「초장중가의」를 중심으로 삼론종의 이원적 범주들을 살펴해보았다. 삼론종이 내외, 본말, 체용 등 당시 중국철학의 전통적 범주를 운용하는 것을 넘어서 소밀·횡수·단복·쌍척·통별과 같은 새로운 이원적 범주들을 고안하였던 것은 타학파들과 차별화 된 자신만의 새로운 사상적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던 작업이었는지도 모른다.

소밀·횡수·단복·쌍척·통별의 범주들은 전통적 범주들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보다 우열하다는 위계성을 내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원적 범주들은 깨달은 자의 시각에서 제법이 자유롭고 무애하게 펼쳐지는 방식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제법의 평등성까지 담보하는 새로운 사유틀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원적 범주들은 깨달음과 현실 세계를 매개하는 방편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나타낸다. 삼론종에서는 중생의 다양한 근기에 따라 여러 가지 교화형식을 전개시키고 있는데, 이원적 범주론은 이러한 방편 교화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원적 범주들은 삼론종의 핵심적 사상을 담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도 충분히 연구 가치가 있지만, 삼론 문헌에서 보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논리를 이해하

47) 앞의 책, p.114.

48) 『二諦義』中卷(T.45, 95c13-15); 『中觀論疏』6卷(T.42, 97b27-29); 『仁王般若經疏』中卷(T.33, 338c20-23)

49) 최연식 교구, 앞의 책, p.114. 若用有無爲別, 有不等爲通者, 則破疏密義宗也.

기 위해서도 이 범주들을 고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소밀·횡수·단복·쌍척·통별 범주들이 각기 다른 고유한 의미와 속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서로 밀접한 상관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밝혔다. 혜균은 각각의 이원적 범주들에서 소-수-단-쌍-통을 하나의 집합으로, 밀-횡-복-척-별을 다른 하나의 집합으로 나누어 해석하였는데, 이 범주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길장과 혜균이 이론적으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지점들도 드러나게 되었다.

본 논문은 각각의 이원적 범주들의 의미와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기초적 연구이지만, 여러 이원적 범주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각각의 개별 범주에 관해서는 의미를 충분히 개선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각각의 개별 범주에 관해 삼론 문헌에서 나타난 용례를 통해 심화된 연구가 진행된다면, 삼론교학의 사유체계가 더 분명하게 규명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 범주들이 삼론종 이후의 불교사상사에서 각각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비교 고찰하는 것도 앞으로 남겨진 숙제이다.

---

## 참고문헌

---

### 1. 원전류

- 『大般涅槃經』(『大正藏』 12)
- 吉藏, 『三論玄義』(『大正藏』 45)
- 吉藏, 『維摩經義疏』(『大正藏』 38)
- 吉藏, 『二諦義』(『大正藏』 45)
- 吉藏, 『淨名玄論』(『大正藏』 38)
- 吉藏, 『仁王般若經疏』(『大正藏』 33)
- 吉藏, 『中觀論疏』(『大正藏』 42)
- 미상, 『大乘玄論』(『大正藏』 45)
- 慧均, 『大乘四論玄義記』(『卍續藏』 46)
- 慧均, 최연식 校注, 『校勘大乘四論玄義記』, 서울: 불광출판사, 2009.

### 2. 저서류

- 김성철, 『승랑: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파주: 지식산업사, 2011.

### 3. 논문류

- 조윤경, 「삼론교학에 나타난 ‘방편(方便)’의 의미- ‘방편(方便)’과 ‘권(權)’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禪文化研究』 제19집, 2015.
- 橫超慧日, 「新出資料·四論玄義の初章中仮義」, 『印度學佛教學研究』第7卷第1號, 1958.
- 伊藤隆壽, 「三論教學における初章中仮義(上)」,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第32號, 1974.
- \_\_\_\_\_, 「三論教學における初章中仮義(中)」,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第34號, 1975.
- \_\_\_\_\_, 「三論教學における初章中仮義(下)」,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第33號, 1976.
- 趙允卿, 『教門卽是理門: 吉藏二諦思想研究』,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北京: 北京大學, 2014.

## A Study on the Dual-Categories in Sanlun Tradition: Focused on Shumi, Hengshu, Danfu, Shuangzhi and Tongbie in *Chojangjougga'ui, Daeseungsalonhyun'ui* Vol. 1

Cho, Yoon Kyung  
Lecturer  
Sogang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fundamental meaning of important dual-categories, including Shumi (疏密), Hengshu (橫豎), Danfu (單複), Shuangzhi (雙隻) and Tongbie (通別) in Sanlun tradition, mainly focusing on the *Chojangjougga'ui, Daeseungsalonhyun'ui* Vol. 1. In the Sanlun School, those dual-categories were used as the cognitive frames in describing unhindered forms of the Middle Way and Prajñāpti, as well as the teaching methodologies in leading various kinds of people to enlightenment.

To be more specific, in Shumi, *Shu* (疏) refers to the loose relation between two things compared to *Mi* (密) meaning the close internal relation bound together by one thing. In Hengshu, *Heng* (橫) is the horizontal and parallel argument while *Shu* (豎) is the vertical and transcendental integration. The fundamental meaning of Danfu distinctly differed from that of Shuangzhi despite their superficial similarity. Danfu is related to the meaning within a hierarchy; *Dan* (單) points to the single layer of the meaning and *Fu* (複) points to multiple layers of the meaning. In contrast, Shuangzhi is a term which has the meaning related to a pair; *Shuang* (雙) covers both in the pair, and *Zhi* (隻) points to only one of the pair. In addition, Tongbie means the general [通] and the particular [別], relative concepts established in reliance on each other.

Huijun divided the above-mentioned dual-categories into two groups,

*Shu-Shu-Dan-Shuang-Tong* for one, *Mi-Heng-Fu-Zhi-Bie* for the other. This kind of systematic approach to the dual-categories is his own creative interpretation.

Keywords

Sanlun School, Hyegyun, Shumi (疏密), Hengshu (橫豎), Danfu (單複), Shuangzhi (雙雙), Tongbie (通別)

2016년 04월 29일 투고

2016년 05월 30일 심사완료

2016년 06월 04일 게재확정

